

[1] 수도원 안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스는 공동체 전체를 소집하여, 그 일을 자기가 직접 제안해야 한다. [2] 그는 형제들의 의견을 듣고 깊이 검토한 후에 더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바를 행할 것이다. [3] 모든 형제들을 회의에 소집하라고 하는 이유는, 주께서 때때로 더 좋은 의견을 젊은 사람에게 밝혀 주시기 때문이다.

[4] 형제들은 온전히 겸손된 복종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할 것이지 감히 자기 의견을 거만하게 주장하지 말 것이다. [5] 결정권은 아빠스에게 달려 있으니, 그가 더욱 유익하다고 판단한 바에 모든 이들은 순종할 것이다. [6] 스승에게 순종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합당한 일인 것처럼, 모든 일을 예견하며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스승에게 합당한 일이다.

[7] 그러므로 모든 이는 모든 일에 있어 규칙을 스승과 같이 따를 것이며, 아무도 이것을 경솔하게 위반하지 말 것이다. [8] 아무도 수도원 안에서 사사로운 마음의 뜻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. [9] 누구든지 자기 아빠스와 무례하게 다투지 말아야 하고 수도원 밖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.

[10] 누가 만일 그런 짓을 감히 행하거든 규칙에 정한 벌을 줄 것이다. [11] 그러나 아빠스 자신은 자기 가 판단한 모든 일에 대해 지극히 공정한 판관이신 하느님께 분명히 험바치게 될 것임을 알고,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규칙을 지키면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.

[12] 만일 수도원의 유익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을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장로들의 의견만 들을 것이니, [13] “모든 일을 의논하여 행하라. 그렇게 한 후에는 뉘우침이 없을 것이다”라는 성서의 말씀처럼 할 것이다.